

2008 새해설계 ④

성균관유도회 포천지부 회장 이운우

몇 천년 동안 전해져온 禮儀道德 실천해야

포천유림이 가정교육의 모범을 먼저 보여야

“제사지내는 법, 제향, 서원제 사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균관의 전례위원을 모셔다 특강을 실시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7월8일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성균관유도회 포천지부 이운우(사진·67) 회장은 1천여명의 포천유림의 조직체인 성균관유도회 포천지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예실본경기도포천지부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예실본이란 예의생활실천본부의 약자로서 정신질문을 맡게 되어 평생 고상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생애 최고의 해(The Best Years of Our Lives, 1946))는 실화를 바탕으로 집권 용사들의 고뇌를 감동적으로 그린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전쟁참전용사 세 사람 중 호머는 전쟁터에서 양팔을 모두 잃었다. 전쟁 전에는 운동선수 아니냐 피아노도 잘 쳐 삼촌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곤했던 재능 있는 젊은이였다. <포 미 앤 마이 갈(For Me and My Gal, 1942))에서 남자 주인공도 연예인으로 이틀이 앞자리에서 시작할 때 임영룡 지서를 받게 된다. 고민 끝에 임영을 피하려고 자신의 손을 자해하게 되는데 사실 20세기의 젊은 동성애의 연예인들에게 임영룡 지서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악몽이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연예인들과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가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시대의 왕과 귀족들은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 사회 봉사나 전쟁참여 등에 있어서 솔선수범했다. 많은 원로원과 왕실의 자제들이 자진해서 전쟁에 참전했으며 오히려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도 수많은

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 성균관유도회 포천지부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1년에 네 차례 개최하고 있다. 과거처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각읍면동지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산면과 소흘읍은 잘 되어 있다. 내촌면과 군내면도 본궤도에 올라가 있다. 올해는 2월 중순과 3월 중순 각 지역별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직을 정비하는 해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회장은 예절교육을 유도회에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예절 교육강사도 충분하다. 지역증을 갖고 있는 예절교육강사가 포천에도 있다. 이들을 활용한 예절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 회장은 또 1년에 1회 5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성년식이 그해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개인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 당상권 이상 되는 사람들

이 물러날 때 하는 잔치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약주 대접하는 절차를 옛날식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옛 풍습대로 진행하는데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의례 관계 또한 그냥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참여가 적었던 성균관유도회가 올부터는 예의실천운동본부와 함께 교통질서캠페인과 문화재 시설이 있는 곳에 제조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장은 10~20년 후 유림의 모습을 상상하면 후계세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여성·청년유도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후계세대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견을 넓히기 위해 다른 지역 유림활동도 알아보고 우리에겐 접목시키기 위해 1년에 1회 선진지방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버스 2대를 동원해 이씨조선 개국공신 정도전 사당 및 기념관과 광택향 당사 등을 실시해 포천의 유림들이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도 되었다고 한다.



또 예식장과 가마가 준비되어 있으니 올해는 전통혼례식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유도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림조직을 활성화, 내실화하여 사회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문위원회를 조직해 유림사업에 절대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고 밝히는 이 회장은 “예의 문화 정착시켜 깨끗한 사회, 범죄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유림들이 가정교육을 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고 몇 천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의 예의도덕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가정예절, 학교예절, 공공예절 등의 내용이 포천신문에 연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2

간악한 자가 준 술을 어찌 내 뱃속에 남겨두겠소?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진복창과 이기가 왕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서로 어울려 정사를 농락하였다. 그때 진복창이 임금으로부터 남색 비단으로 만든 옷과 친필을 하사받았다. 진복창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임금의 친필을 죽자로 만들어 대청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수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윤결은 수찬에 있었는데, 속직을 핑계로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복창은 자신의 심복으로 하여금 대신 속직을 하게 하고 억지로 윤결을 참석토록 하였다.

결국 윤결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고 잔치에 참석하였다. 잔치에 참석한 윤결은 큰 술잔으로 서너 잔을 연거푸 마시고 집짓 정신을 못 차리는 척하며 진복창의 새 옷에 오물을 토해 버렸다. 진복창은 깜짝 놀라 오물을 털며 말하였다.

“누가 그대의 주장을 해이할 수 없다고 하였는가? 벌써 술에 취한 모양이군.”

진복창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짐짓 태연한 척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윤결

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 이튿날, 어떤 사람이 격정스러운 표정으로 윤결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의 옷에다 토악질을 하였소? 그의 안색이 끔찍도 하지 않고 손으로 오물을 훔치니 아마도 그대를 지극히 존중하는가 보오. 그런데 어찌 그를 찾아가 사과하지 않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윤결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간악한 자가 준 술을 어찌 내 뱃속에 남겨두겠소? 더구나 임금께서 내리신 옷이 간악한 자의 땀에 합당하거나 한 것이오? 내가 토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오.”

결국 그는 이 일로 미움을 받아 임금이 불량한 말을 했다는 모함을 입고 고문당한 후 유배되었다. 윤결은 출옥한 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하늘에 해가 저렇게 밝은데 내 어찌 죄 없이 죽겠는가?”

진복창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윤결은 음식을 끊고 여덟 차례나 고문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윤결(尹潔) 1517년(중종 12)~1548년(명종 3).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자는 장원(長源), 호는 취부(醉夫) 또는 성부(醒夫)이다. 1537년(중종 32) 진사가 되고, 154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48년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으나 필화사건으로 참형된 안명세(安明世)의 정당함을 술자리에서 발설한 것이 빌미가 되어 진복창 등의 밀고로 국문을 받던 중 옥사하였다. 그의 동생 준(濬)도 윤원로의 죽음이 윤원형 형제의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예/술/칼/검

장안의 화제(話題)가 화재(火災)다

장안 최고의 문화제가 잿더미가 되고 예술의 훈이 통곡한다. 국보 1호의 죽음이다. 이 땅의 문화제는 문화예술의 엄연한 동지며 역사적으로는 대대손손 이어갈 붉은 산실이다. 그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순간 연기로 사라졌다.

슈퍼트 켈자(소방용 고가 사다리차)가 목놓아 물을 뿜어 댕지만 모두 허사였다. 또 한번 사대환에 의한 비행기 실종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몇 해 전 공개된 미 국무성 문서에 의하면 글렌 밀러는 런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당시 이 사실은 미군 사기저하를 우려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글렌 밀러는 전장에서 최전선기에 전쟁에 몸을 던졌던 스윙밴드의 위대한 작곡가 겸 지휘자였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요즘 연예인들의 공천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공천에 대한 관심이 앞서 과거 선배 연예인들과의 행적을 거울삼아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가! 메스컴에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먹이

며 여러 각도로 책임의 한계를 캐묻고 따져 묻기에 분주하다. 그렇다고 ‘승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타버린 잔해와 남아있는 예술적 소산을 가슴속에 업숙혀던 건축 예술의 기쁨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으며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 가치와 신인들이 쌓아 올린 예술의 위대한 탐을 역사의 교훈으로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 지나친 상상도 실감으로 땅을 치고 통탄한다고 그 모습이 어찌 다시 돌아오겠는가 아무리 슬퍼도 감상에 젖어서는 안된다.

땅에 당당히 서 있던 그 모습은 영영 사라졌지만 그 예술적 열과 혼을 인간의 시간 속에 다시 새로이 새겨 ‘승례문’은 영원할 것이다. 끝내 잿더미 속에 죽일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스러지는 슬픔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억해야 할 정신적 유산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완벽한 고증과 예술적 매카니즘에 장인의 정신을 불어넣어 옛 선인의 혼과 건축예술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만 불을 끄고 다시 품을 꾸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한다. 물 질 만능

에 따라 인간과 사회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품어터진 것이다. 풍요 속 빈곤으로 인한 소외와 박탈감으로 배척거리는 이 사회가 울귀넌 광란의 모습이다. 더 이상 독감에 걸려 면역력을 잃은 핏줄에 맨 날 진통제만 씹어 부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협력하고 인간의 존엄의 이치를 깨달아 사람의 길을 온전히 내야 한다.

‘승례문’ 가는 길에 꽃비가 내리도록 말미나게 물어보자. 그리고 다시 뜨는 햇살로 집안을 먼지 청소해야 한다. 마치 건축예술의 문화 예술적 가치가 사람의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 주술의 떡을 떼어 놓고 절단하는 꼴이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병정만 이성을 다시 회복하여 잃은 것과 얻은 것의 균형을 다시 조율하고, 건강한 예술문화를 퍼올려 그 정신의 불을 당길 때 비로소 역사 앞에 ‘승례문’은 부활이요, 진정한 복원이요, 문화의 꽃을 다시 피워 내는 일이다.

그만 불을 끄고 다시 품을 꾸자.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병역기피 연예인과 1940년대 전쟁참여 연예인들

20세기에 발발한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냉전 그리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었다. 운이 좋아 복수를 건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불구가 되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평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생애 최고의 해(The Best Years of Our Lives, 1946))는 실화를 바탕으로 집권 용사들의 고뇌를 감동적으로 그린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전쟁참전용사 세 사람 중 호머는 전쟁터에서 양팔을 모두 잃었다. 전쟁 전에는 운동선수 아니냐 피아노도 잘 쳐 삼촌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곤했던 재능 있는 젊은이였다. <포 미 앤 마이 갈(For Me and My Gal, 1942))에서 남자 주인공도 연예인으로 이틀이 앞자리에서 시작할 때 임영룡 지서를 받게 된다. 고민 끝에 임영을 피하려고 자신의 손을 자해하게 되는데 사실 20세기의 젊은 동성애의 연예인들에게 임영룡 지서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악몽이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연예인들과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가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시대의 왕과 귀족들은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 사회 봉사나 전쟁참여 등에 있어서 솔선수범했다. 많은 원로원과 왕실의 자제들이 자진해서 전쟁에 참전했으며 오히려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도 수많은

은 전쟁을 겪었는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고위층 자제들도 전쟁에 참여했으며 전사한 예도 많다. 심지어 영국왕실의 앤드류 왕자도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지만 평범한 한 병사의 죽음처럼 애도하며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들 중에 특히 몇 명의 연예인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던 재벌 연예인들이었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들 중에 특히 몇 명의 연예인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던 재벌 연예인들이었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참전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마흔 살이 넘는 중년들이었으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재벌 연예인들이었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 억 원의 돈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들의 전쟁참여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이었던 것이다.

이스트 디 아아미(This is the Army)라는 뮤지컬로 수많은 전성기를 오가며 공연했던 어빙 버린. 알 켈슨은 자신의 수많은 뮤지컬 히트곡들을 부르며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떠나들었고 위문공연 도중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 몇 년을 전쟁터에서 보냈다. 글렌 밀러(Glenn Miller)는 안타깝게도 위문공연도중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1944년에 공연을 위해 런던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도중 기상 악화에 의한 비행기 실종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몇 해 전 공개된 미 국무성 문서에 의하면 글렌 밀러는 런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당시 이 사실은 미군 사기저하를 우려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글렌 밀러는 전장에서 최전선기에 전쟁에 몸을 던졌던 스윙밴드의 위대한 작곡가 겸 지휘자였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요즘 연예인들의 공천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공천에 대한 관심이 앞서 과거 선배 연예인들과의 행적을 거울삼아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7)

3.1운동과 33인① 「이종일」님

포천 출신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이종일(李鍾一)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다.

이종일님은 천재였으며 교육자였으며 민권 운동가였고 언론인이었으며 독립 운동가 이었고 천도교 간부였는가 하면 한글 맞춤법 연구를 한 한글 학자였다. 다시 말해서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으며 사회 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호는 옥파(沃坡) 도호(道號)는 천연자(天然子) 본관은 성주(星州) 고향은 포천 출신이다.

학문을 일찍 익혀 15세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달하였으며 상경하여 학문연구에 힘을 썼다. 고종 29년 1882년 사신으로 일본으로 갔으며 돌아와 정3품의 위계를 받았다. 1894년 보성보통학교 정에 취임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에 참가하였다.

또 대한제국헌법에 참가 민권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1898년 제국신문의 사장이 되었다.

청년애국회에 관여하여 일제의 침략정책을 공격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일깨워 개화사상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천도교에 입교하여 월보과장과 보성인쇄 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에 억체되어 3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출옥 후, 조선국문연구회 회장이 되어 한글 맞춤법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남은 천재적인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강직하여 냉철한 판단력과 소유자였으며 자기 주장이 뚜렷한 인물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애족 애국의 정신이 투철하여 일생동안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한 내 고향 포

천 출신의 선구자였다. 조국은 1962년 뒤늦게나마 건국훈장장봉(長奉)을 수여하였다. 묘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운동가 묘역에 있다. 이 밖에도 3·1운동시 내 교향 포천 출신 33인은 권동진(權東鎭:1861년~1941년) 등이 있다.

다른 고장에는 3·1운동공원을 만들고 동상도 세워 고향 사람들이 모여 3·1운동 당시를 회고하며 만세를 드높이 부르고 햇볕행진도 한다고 한다.

33인의 세분이나 탄생한 내 고향 포천에도 3·1독립공원 한 곳쯤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매년 3월1일이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정신을 길이는 만세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내 고향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가 있어 내 고향 포천이 떠나갈듯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양기성 용연서원 원장

歲暮(세모)

今年一歲夢如流(금년일세몽여류) 反省心懷獨臥樓(반성심회독와루) 금년 한해가 꿈 같이 흐르니 다락에 홀로 누워 심회를 반성하네

日沒東山明月出(일몰동산명월출) 風吹西岫黑雲收(풍취서수흑운수) 해진 후 동산에 밝은 달이 뜨고 비림이 부니 서쪽 언덕의 흑운이 거저네

門前采圃鶉群噪(문전채포지군조) 屋後農場雀隊遊(옥후농장작대유) 문전 채포에는 까치 무리가 지지고 집뒤 농장에는 참새들이 놀고 있네.

萬事亨通無煩惱(만사형통무탈고) 新春幸運願來留(신춘행운원래류) 만사가 형통하여 탈없이 지나가니 새해에는 행운이 돌아오기를 바라네